

제 1 교시

언 어 영 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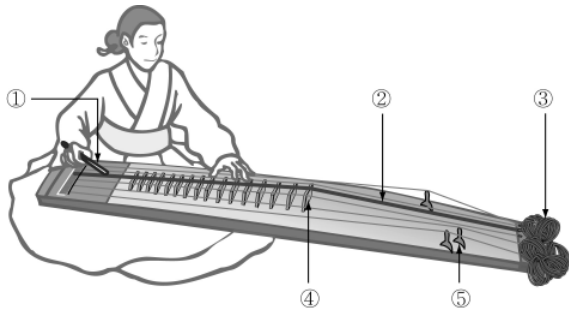
성명		수험번호					2			
----	--	------	--	--	--	--	---	--	--	--

1

- 먼저 문제지에 성명과 수험 번호를 정확히 기입하십시오.
- 답안지에 수험 번호 및 답을 표기할 때는 반드시 '수험생이 지켜야 할 일'에 따라 표기하십시오.
- 문항에 따라 배점이 다르니, 각 물음의 끝에 표시된 배점을 참고하십시오. 1점과 3점 문항에만 점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점수 표시가 없는 문항은 모두 2점씩입니다.

1번부터 6번까지는 듣고 답하는 문제입니다. 방송을 잘 듣고 답을 하기 바랍니다. 듣는 내용은 한 번만 방송됩니다.

1. (물음) 이 수업에서 언급하지 않은 것은? [1점]



2. (물음) 이 강연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1점]

- ① 서당은 현재의 초등교육 기관에 해당한다.
- ② 서당 훈장에 대한 공인된 자격 기준은 없었다.
- ③ 서당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의 연령층은 다양했다.
- ④ 서당에서는 세 가지 방법으로 교육이 진행되었다.
- ⑤ 서당 교육은 학생의 수준을 고려하지 않고 이루어졌다.

3. (물음) 엄마가 문제 삼고 있는 아들의 말하기 방식은? [1점]

- ① 상대방과의 친밀감을 내세워 예의 없게 말한 점.
- ②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우기듯이 말한 점.
- ③ 상대방의 인격을 무시하며 강압적인 어투로 말한 점.
- ④ 상대방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직설적으로 말한 점.
- ⑤ 상대방의 기분을 나쁘게 하는 비속어를 섞어서 말한 점.

4. (물음) 이 뉴스에 대한 청취자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배아줄기세포가 무엇인지 알 수 있겠군.
- ② 배아줄기세포 연구가 왜 논란이 되는지 알 수 있겠군.
- ③ 배아줄기세포가 앞으로 어떻게 활용될지 알 수 있겠군.
- ④ 배아를 바라보는 서로 다른 시각이 있음을 알 수 있겠군.
- ⑤ 배아줄기세포 연구가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알 수 있겠군.

[5-6] 들려주는 내용을 잘 듣고, 5번과 6번의 두 물음에 답하십시오.

5. (물음) 사회자가 소개한 네티즌 중, 이 토론의 내용을 잘못 이해한 사람은? [1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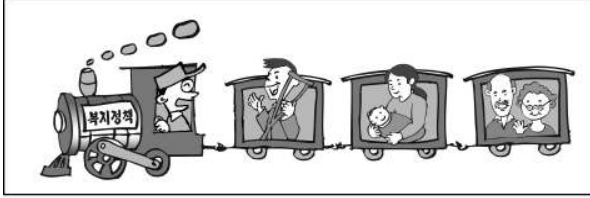
- ① 하늘사랑
- ② 파란바다
- ③ 푸른나무
- ④ 가을바람
- ⑤ 하얀안개

6. (물음) 두 토론자의 차이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남자는 감정적으로 말하는 데 비해, 여자는 논리적으로 말하고 있다.
- ② 남자는 현실적인 성과를 중시하는 데 비해, 여자는 파생될 수 있는 문제점을 중시하고 있다.
- ③ 남자는 정책의 법률적인 면을 부각시키는 데 비해, 여자는 정책의 경제적인 면을 부각시키고 있다.
- ④ 남자는 상식적 판단으로 문제에 접근하는 데 비해, 여자는 구체적인 자료를 활용하여 접근하고 있다.
- ⑤ 남자는 상대방의 의견을 부분적으로 수용하는 데 비해, 여자는 상대방의 의견을 반박하는 데 치중하고 있다.

이제 듣기·말하기 문제는 다 끝났습니다. 7번부터는 문제의 지시에 따라 답을 하기 바랍니다.

7. 그림을 보고 떠오르는 생각을 글로 쓸 때,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일방적 시혜 중심의 복지정책
- ② 지역 안배를 고려하는 복지정책
- ③ 수혜자를 고루 배려하는 복지정책
- ④ 경제적 평등을 실현하는 복지정책
- ⑤ 세대 간의 화합을 이룩하는 복지정책

8. '출산율 감소의 원인과 해결책'에 관한 글을 쓰기 위해 개요를 작성해 보았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점]

**주제문: 출산율 감소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자.**

I. 서론

- 최근 출산율의 급격한 감소
- 문제 제기

II. 본론

1. 출산율 감소의 원인

- 1) 경제적 원인
  - 출산 및 육아 비용의 과중한 부담 ..... ①
  - 사교육비 과다 지출에 따른 교육비 부담
- 2) 사회적 원인
  - 결혼 연령의 상승 및 미혼율의 증가 ..... ②
  - 시대 변화에 따른 여성의 자아실현 욕구 증대

2. 출산율 감소 문제의 해결책

- 1) 제도 개선을 통한 해결책
  - 출산과 육아 장려를 위한 정부의 재정적 지원 ..... ③
  - 육아 부담 해소를 위한 보육 시설 확충
  - 사교육비 지출 해소를 위한 교육 제도의 개선
  - 결혼과 출산에 대한 가치관 재정립 ..... ④
- 2) 의식 개선을 통한 해결책
  - 출산 장려를 위한 홍보 강화 ..... ⑤

III. 결론

- 요약 및 정리

9. '청소년 독서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에 관한 글을 쓰기 위해 메모를 작성한 뒤 자료를 수집하였다. 자료 활용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메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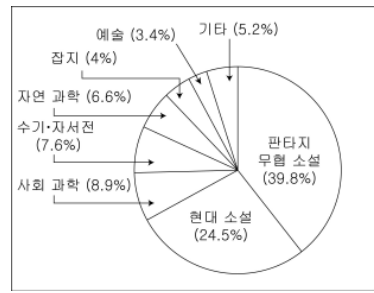
I. 어떻게 시작할까?  
청소년들의 독서 실태를 보여줘야겠어.

II. 문제의 심각성을 어떻게 부각시킬까?  
전문가의 견해를 인용해야겠어.

III. 문제의 원인은 무엇일까?  
학교 차원에서 원인을 찾아 봐야지.

IV.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학교 차원의 과제와 교사가 담당할 역할로 나눠서 이야기 해야겠어.

<자료1> 학생들이 주로 읽는 도서 종류



<자료2> 인터뷰

"읽다 보면 자꾸 추리소설만 읽게 돼요. 사실 다른 종류의 책들도 좀 읽어야겠다고 생각은 하는데 솔직히 뭘 읽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선생님들께서 읽을 만한 책도 좀 추천해 주시고, 책 고르는 방법도 가르쳐 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자료3> 신문기사

편향된 사고에 매달려..... 다양한 독서 해아

○○대 강△△ 교수는 "편향된 독서를 하면 한 가지 이념에 고착되는 경향이 있다. 또한 판타지 소설만을 지나치게 많이 읽을 경우 비현실적인 사고를 많이 하여 현실에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지적했다. 강 교수는 "전체적인 사고 능력을 갖추기 위해 다양한 서적을 읽어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학생들의 잘못된 독서 습관을 교정하기 위해 독서지도전담교사제를 도입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 ① I에서는 <자료1>을 활용해서 학생들의 독서 분야가 편중되어 있다는 것을 지적해야겠어.
- ② II에서는 <자료3>을 활용해서 편향된 독서가 균형 있는 정신 발달을 저해한다는 것을 밝혀야지.
- ③ III에서는 <자료2>를 활용해서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독서교육의 문제점을 지적해야겠어.
- ④ III에서는 <자료3>을 활용해서 학생들이 비현실적인 사고를 많이 하고 있음을 부각시켜야겠어.
- ⑤ IV에서는 <자료2>와 <자료3>을 활용해서 학교에서의 독서지도 교육이 실효성 있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해야겠어.

10. ㉠에 들어갈 내용으로 <보기>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것은?

**OO고등학교** OOhighschool

학교 소개    진학 정보실    학습 자료    상담실    게시판 모습    회원 가입    HOME

---

**나도 한마디**

**74** 갑

**봉사 활동을 마친 후**

학교에서 주관하는 봉사 활동, 생각할수록 일반적인 것 같아요. 시험 끝나고 쉬고 싶은 우리에게 환경 정화 캠페인을 하라니... 정말 너무 하는 거 아닌가요? 이런 완전히 강요된 봉사활동이죠. 이렇다 보니 마음에서 우러나서 하는 애는 별로 없는 것 같고...

**Re:** 을

**어지피 봉사활동이란 게 다 그런거...**

봉사 활동에서 중요한 건 결국 시간뿐이라고 생각하면 속 편하죠. 열심히 하나 건성으로 하나 활동 시간이 기록되는 건 결국 마친가 지나까요.

**Re:** 병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린 법^^**

㉠

수정 | 이동 | 삭제 다음 | 목록

< 보 기 >

- 제목에 어울리는 내용일 것.
- '갑'의 말을 일부 긍정하면서 '을'의 태도를 비판할 것.
- 상황에 어울리는 관용적 표현을 사용할 것.

- ① 손쉬운 봉사 활동이 어디 있겠어요? 어려운 일일수록 보람도 크듯이 봉사 활동으로서 환경 정화 캠페인은 우리에게 많은 노력을 요구하는 것 같아요.
- ② 환경 정화 캠페인을 봉사 활동으로 인정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라고 생각해요. 캠페인은 단지 캠페인일 뿐, 필요 이상의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 ③ 시험 직후라서 저 또한 맥이 풀렸던 건 사실이었지만, 겉으로 내색은 하지 않았죠. 다른 친구들은 열심히 하는데, 저만 하기 싫어하는 것 같아 여간 신경이 쓰이는 게 아니더군요.
- ④ 뒷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듯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성실한 노력이 밝은 사회를 만들어 가는 법이죠. 봉사활동을 시험 직후에 하러니 싫증났던 건 사실이지만, 열심히 하려는 의욕만 있으면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죠.
- ⑤ 시험 보느라 지쳤는데 환경 정화 캠페인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니 저도 짜증이 났어요. 하지만 이왕이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하지 말고, 즐거운 마음으로 열심히 하는 게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11. <보기>의 ㉠ ~ ㉣에 들어갈 단위어(單位語)가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된 것은?

< 보 기 >

- 누나는 결혼을 하면서 이불 두 (㉠)(을/를) 준비하였다.
- 질린 듯 상기되어 있는 얼굴 위로 머리카락 몇 (㉡)(이/가) 흘러내려 있었다.
- 한 (㉢)한 (㉣)뜨면서 아내는 자신이 뜯 목도리를 두른 남편의 모습을 떠올렸다.

- ① 장, 울, 땀                      ② 채, 울, 코                      ③ 필, 울, 코
- ④ 채, 장, 땀                      ⑤ 장, 채, 모

12. <보기>의 글을 고쳐 쓰기 위한 의견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점]

< 보 기 >

어떤 사람들은 하나를 가지게 되면 ㉠ 또다른 하나를 가지려 한다. 이러한 행동은 많은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 낚들보다 여유가 있으면 베풀 줄 알아야 하는데, 제 욕심만 챙기기 때문에 계층간의 위화감이 ㉢ 생겨지기도 한다. 일부 계층만이 부를 누리는 사회는 바람직하지 않다. ㉣ 그리고 사회는 일부 계층에 의해 유지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건강한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나눔의 마덕이 있어야 한다. 가진 사람들은 자신들의 과욕을 ㉤ 꼼꼼히 반성할 필요가 있다. 넉넉지 못한 살림에도 평생 모은 재산을 사회에 환원한 사람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 ① ㉠은 '또'라는 부사와 '다른'이라는 형용사로 이루어진 말이므로 '또'와 '다른'을 띄어 써야겠어.
- ② ㉡ 앞에는 생략된 주어인 '어떤 사람들은'을 첨가해야 문맥이 자연스러워져.
- ③ ㉢은 잘못된 피동 표현이므로 '생기기도 한다'로 고치는 게 좋겠어.
- ④ ㉣은 문맥상 '왜냐하면'으로 고치는 것이 좋겠어.
- ⑤ ㉤은 부사인 '꼼꼼'을 다시 부사화한 말이므로 '꼼꼼이'로 바꿔야겠어.

13. <보기>는 '동의어(同義語)'에 관한 설명이다. ㉠, ㉡에 인용할 수 있는 예로 적절한 것은?

< 보 기 >

하나의 뜻을 가졌으면서도 여러 개의 이름을 가진 것, 즉 형태가 다른 별개의 단어들 이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으면 그 단어들 을 동의어(同義語)라 한다. 그런데 형태가 다른 두 단어가 완전히 일치하는 의미, 즉 완전한 동의(同義)를 가지기란 대단히 어렵다. 특히 '한자어-고유어'의 경우, 두 단어가 의미의 차이는 거의 없어 보이지만, 다음과 같이 대치시켜 보면 사용에 제한이 있음을 알 수 있다.

㉠ \_\_\_\_\_  
→ ㉡ \_\_\_\_\_

- ① ㉠ 재판은 공정성과 정확성이 생명(生命)이다.  
→ ㉡ 재판은 공정성과 정확성이 목숨이다.
- ② ㉠ 오랜 한발(旱魃)로 인해 농사를 망쳤다.  
→ ㉡ 오랜 가뭄으로 인해 농사를 망쳤다.
- ③ ㉠ 옷을 벗은 그의 전신(全身)은 멍투성이였다.  
→ ㉡ 옷을 벗은 그의 온몸은 멍투성이였다.
- ④ ㉠ 그의 피부(皮膚)가 별경게 부어올랐다.  
→ ㉡ 그의 살갗이 별경게 부어올랐다.
- ⑤ ㉠ 의사는 그의 폐(肺)에 문제가 있다고 진단하였다.  
→ ㉡ 의사는 그의 허파에 문제가 있다고 진단하였다.

14. <보기>의 예문을 가지고 '불명확한 의미 관계'에 대해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점]

< 보 기 >

㉠ 어떻게 보면 그가 웃는 것이 이상하다.  
 ㉡ 그는 숨겨 두었던 밤과 호두 두 알을 몰래 먹었다.  
 ㉢ 친절할 그의 누나는 내게 손수건을 말없이 건넸다.  
 ㉣ 그는 나보다 부산에서 온 그 여학생을 더 좋아한다.  
 ㉤ 그는 울면서 돌아온 자신의 아이를 꼭 껴안아 주었다.

- ① 은주 : ㉠은 '웃는 모습'이 이상한 것인지 '웃는 행위 자체'가 이상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아요.
- ② 덕성 : ㉡은 '밤'과 '호두'를 각각 두 알씩 먹은 것인지, 두 가지를 합하여 두 알을 먹은 것인지, '밤' 한 알과 '호두' 두 알을 먹은 것인지 명확하지 않아요.
- ③ 성규 : ㉢은 '그'가 친절한 것인지 '그의 누나'가 친절한 것인지 명확하게 알 수 없어요.
- ④ 희정 : ㉣은 '그'와 '나'를 비교하는 것인지 '그'와 '그 여학생'을 비교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아요.
- ⑤ 병혁 : ㉤은 '그'가 울고 있는 것인지 '자신의 아이'가 울면서 돌아온 것인지 명확하지 않아요.

【15 - 19】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강물 아래로 강물 아래로  
 한 줄기 어두운 이 강물 아래로  
 검은 밤이 흐른다.  
 은하수가 흐른다.

㉠ 날은 밤에 숨막히는 나도 흐르고  
 은하수에 빠진 푸른 별이 흐른다.

강물 아래로 강물 아래로  
 못 견디게 어두운 이 강물 아래로  
 빛나는 태양이  
 다다를 무렵

이 강물 어느 지류에 조각처럼 서서  
 나는 다시 ㉡ 푸른 하늘을 우러러 보리.....

- 신석정, 『어느 지류에 서서』-

(나) 감나무에서 노래하던 매미 한 마리  
 날아가다 갑자기 공중에서 멈추었다.  
 아하 거미줄이 쳐 있었구나.  
 추녀 끝에 숨어 있던 거미가  
 몸부림치는 매미를 단숨에 묶어버렸다.  
 양심이나 이념 같은 것은  
 말할 나위도 없고  
 후회나 변명도 쓸 데 없었다.  
 일곱 해 동안 다듬어온  
 매미의 아름다운 목청은

겨우 이레 만에  
 ㉢ 거미발이 되고 말았다.  
 그렇다 걸리면 그만이다  
 매미들은 노래를 멈추고  
 날지도 않았다.  
 유달리 무덤고 긴 ㉣ 여름이었다.

- 김광규, 『매미가 없던 여름』-

(다) 나는 그 불 속에서 울부짖었다.  
 살려 달라고  
 살고 싶다고  
 한 번만 용서해 달라고  
 불 속에서 죽지 못하고 나는 울었다.

참을 수 없는 것  
 무릎 꿇을 수 없는 것  
 그런 것들을 나는  
 인정했다.  
 나는 파드득 날개 쳤다.

명부<sup>\*</sup>에 날개를 부딪치며 나를  
 호명하는 소리  
 가 들렸다. 나는  
 무너지겠다고  
 약속했다.

젓더미로 떨어지면서  
 젓더미 속에서  
 다시는 살(肉)로 태어나지 말자고  
 다시는 태어나지 말자고  
 부서지는 질그릇으로

㉤ 날개를 접으며 나는  
 새벽 바다를 향해

날고 싶은 아침 나라로  
 머리를 눌렀다.  
 일출을 몇 시간 앞둔 높은 창을 향해

- 황지우, 『비화하는 불새』-

\* 명부 : 저승

15. (가)~(다)에 드러난 시적 화자의 공통적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자신의 삶을 객관적으로 성찰하고 있다.
- ② 현재의 삶에 대한 애착을 드러내고 있다.
- ③ 상황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 ④ 현실 극복의 적극적인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 ⑤ 바람직한 미래에 대한 신념을 제시하고 있다.

16. (가)~(다)의 표현상 특징과 효과로 적절한 것은?

- ① (가), (나)는 하강 이미지를 상승 이미지로 전환시켜 화자의 심리 변화를 드러내고 있다.
- ② (가), (나)는 색채 대비를 통해 시적 화자의 정서를 효과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 ③ (가), (다)는 반복적 표현을 사용하여 시적 의미를 강화하고 있다.
- ④ (나), (다)는 반어적 표현을 통해 주제 의식을 강조하여 드러내고 있다.
- ⑤ (나), (다)는 음성 상징어를 사용하여 삶의 모습을 생생하게 그려내고 있다.

17. (나)를 <보기>와 비교하여 설명하라는 요구를 받았을 때, 그 대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봄철에 즙먹은 쌀 한 말을 주고서는  
가을에 온전한 쌀 두 말을 바치라네.  
더욱이나 즙먹은 쌀 돈으로 물러면  
온전한 쌀값으로 치려야 하느니  
이익으로 남는 것은 벼슬아치 살을 찌워  
고을님 한 번 하면 벼락부자 된다네.  
가혹한 형벌은 민중에게 돌아가니  
휘두르는 채찍질에 살점이 떨어진다.  
큰 가마 작은 술 모두 떼어 가 버리고  
자식은 팔려 가고 소마저 끌려가네.  
- 정약용, 『하일대주(夏日對酒)』-

- ① (나)와 <보기>는 모두 대립적 관계가 설정되어 있다.
- ② (나)는 과거형 시제를, <보기>는 현재형 시제를 사용하고 있다.
- ③ (나)와 <보기>는 계절감이 주제 형상화에 중심 역할을 하고 있다.
- ④ (나)는 우의적으로, <보기>는 직설적으로 주제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 ⑤ (나)의 화자와 <보기>의 화자는 상황을 관찰하여 전달하고 있다.

18. (다)의 내용 구조를 <보기>와 같이 정리하였을 때, ㉠~㉣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선생님:** 이 작품의 핵심 소재인 '불새'는 500~600년마다 불 속에서 죽어 잿더미가 되고 다시 그 잿더미 속에서 부활한다는 전설의 새입니다. 그래서 '불새'는 이 작품의 내용과 밀접한 연관을 갖습니다. 따라서 이 작품의 의미는 죽음과 부활이라는 대립적 구도 속에서 파악될 수 있습니다. 자, 내용을 파악하고 칠판의 빈 칸에 알맞은 말을 채워 볼까요.

- ① ㉠ : 시적 화자의 모습
- ② ㉡ : 잿더미 속으로 무너짐
- ③ ㉢ : 아침 나라의 꿈을 꿈
- ④ ㉣ : 죽음의 상태
- ⑤ ㉤ : 영원한 생명의 획득

19. ㉠ ~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숨막히는 나도'라는 말로 보아 시적 화자가 처한 암담한 상황을 간접적으로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 ② ㉡은 '우러러 보리'라는 말로 보아 시적 화자가 소망하는 이상적 세계로 볼 수 있다.
- ③ ㉢은 '겨우'라는 말로 보아 오랜 기다림 끝에 좌절된 매미의 안타까움이 강조되었다고 볼 수 있다.
- ④ ㉣은 '무덤고 긴'이란 말로 보아 연속되는 시련 속에서 새로운 의미를 모색하는 시간으로 이해할 수 있다.
- ⑤ ㉤은 '접으며'라는 말로 보아 삶에 대한 의욕과 관련된 의미로 파악될 수 있다.

【20-23】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용왕이 선전관(宣傳官) 전어(錢魚)로 하여금 토끼에게 하교하여 가로되,  
 “<중략> 너 죽은 후에 너를 비단으로 몸을 싸고 백옥과 호박(琥珀)으로 관곽을 만들어 명당 대지에 장사할 것이요, 만일 과인의 병이 나오면 마땅히 사당을 세워 네 공(功)을 표하리니, 네 산중에 있다가 호표(虎豹)의 밥이 되거나 사냥꾼에게 잡혀 죽느니보다 어찌 영화롭지 아니하리요? ㉠ 과인이 결단고 거짓말을 아니 하리니, 너는 죽은 혼이라도 조금도 과인을 원망치 말지어다.”

말을 마치자, 좌우를 호령하여 빨리 토끼의 배를 가르고 간을 가져오라 하니, 이 때에 들 아래 섰던 군사들이 일시에 달려들러 하니, 토끼, 무단히 허욕을 내어 자라를 쫓아왔다가 수국 원혼이 되게 하니, 이는 모다 자취(自取)한 화라, 누구를 원망하며 누구를 한하리요? 세상에 턱없이名利(名利)를 탐하는 자는 가히 이것을 보아 경계할지라도. 이 때에 토끼, 이 말을 들으며 청천벽력이 머리를 깨치는 듯 정신이 아득하여 생각하되, '내 부질없이 영화 부귀를 탐내어 고향을 버리고 오매 어찌 이외의 변이 없을소냐? 이제 날개가 있어도 능히 위로 날지 못할 것이요, 또 축지(縮地)하는 술법이 있을지라도 능히 이 때를 벗어나지 못하리니 어찌하리요?' 또 생각하되, '옛말에 이르기를, 죽을 때에 빠진 후에 산다 하였으니, 어찌 죽기만 생각하고 살아날 방책을 헤아리지 아니하리요?' 하더니, 문득 한 피를 생각하여, 이에 얼굴빛을 조금도 변치 아니하고 머리를 들어 전상(殿上)을 우러러보며 가로되,  
 “소토(小兎), 비록 죽을지라도 한 말씀 아뢰리이다. 대왕은 천승의 임금이시요, 소토는 산중의 조그마한 짐승이라. 만일, 소토의 간으로 대왕의 환후(患候) 심분 나오실진대, 소토, 어찌 감히 사양하며, 또 소토 죽은 후에 후장(厚葬)하며 심지어 사당까지 세워 주리라 하옵시니, 이 은혜는 하늘과 같이 크신지라. 소토 죽어도 한이 없사오나, 다만 애달픈 바는, 소토는 바로 짐승이오나 심상(尋常)한 짐승과는 다르와,

본대 방성(房星)\* 정기를 타고 세상에 내려와 날마다 아침이면 옥 같은 이슬을 받아 마시며 주야로 기화요초(琪花瑤草)를 뜯어 먹으며 그 간이 진실로 영약이 되는지라. 이러하므로, 세상 사람이 모다 알고 매양 소토를 만난즉 간을 달라 하와 보침이 심하옵기로 그 괴로움을 견디지 못하와, 염통과 함께 꺼내어 청산녹수 맑은 물에 여러 번 씻사와 고봉준령(高峰峻嶺) 깊은 곳에 감추어 두옵고 다니옵다가, 우연히 자라를 만나 왔사오니, 만일 대왕의 환후 이리하온 줄 알았던들 어찌 가져오지 아니 하였으리잇고?"

하며 또 자라를 꾸짖어 가로되,  
 "네 임금을 위하는 정성이 있을진대, 어이 이러한 사정을 일언반사(一言半辭)도 날 보고 말하지 아니하였느뇨?"  
 하거늘, 용왕이 이 말을 듣고 크게 노하여 꾸짖어 가로되,  
 "네 진실로 간사한 놈이로다. 천지간에 온갖 짐승이 어이 간을 출입(出入)할 이치가 있으리요? 네, 얕은 꾀로 과인을 속여 살기를 도모하나, 과인이 어이 근리(近理)치 아닌 말에 속으리요? ㉠ 네 과인을 기만한 죄 더욱 크지라, 빨리 너의 간을 내어 일변 과인의 병을 고치며, 일변 과인을 속이는 죄를 다스리리라."

토끼, 이 말을 듣고 또한 어이없고 정신이 산란하여 간장이 없고 가슴이 막히어 신중히 생각하되, 속절없이 죽으리로다 하다가, 다시 웃으며 가로되,  
 "대왕은 소토의 말씀을 다시 자세히 들으시고 굽어 살피옵소서. 이제 만일, 소토의 배를 갈라 간이 없사오면, 대왕의 환후도 고치지 못하옵고 소토만 부질없이 죽을 따름이니, 다시 누구에게 간을 구하오려 하시나이까? 그제는 후회 막급하실 터이오니, 바라건대 대왕은 세 번 생각 하옵소서."  
 용왕이 토끼의 말을 듣고, 또 기색이 태연함을 보고 심중에 심(甚)히 의아하여 가로되,  
 "㉡ 네 말과 같을진대, 무슨 간을 출입(出入)하는 표적이 있는가?"

토끼, 이 말을 듣고 크게 기꺼 생각하되, 이제는 내 살아 날 도리 쾌(快)히 있도다 하고 여쭙오되,  
 "세상의 날짐승, 길짐승 가운데 소토는 홀로 특별히 간을 출입하는 곳이 따로 있습니다."  
 왕이 그 말을 듣고 더욱 노하여 꾸짖어 가로되,  
 "㉢ 네 말이 더욱 간사한 말이로다. 날짐승, 길짐승을 물론하고 어이 간을 출입하는 곳이 따로 있으리요?"

[A] 토끼, 다시 여쭙오되,  
 "소토의 간을 출입하는 곳의 내력을 말씀하오리니, 대저 하늘이 자시(子時)에 열려 하늘이 되옵고, 땅이 축시(丑時)에 열려 땅이 되옵고, 사람이 인시(寅時)에 생겨 사람이 나옵고, 만물이 묘시(卯時)에 나와 짐승이 되었사오니, '묘(卯)'라 하는 글자는 곧 소토의 별명이니, 날짐승, 길짐승의 근본을 궁구하오면 소토는 곧 금수의 으뜸이 되나니, 생초를 밟지 아니하는 저 기린도 소토의 아래옵고, 주리되 좁쌀을 먹지 아니하는 저 봉황도 소토만 못하옵기로, 특별히 품부(稟賦)\*\* 하와 일월성신(日月星辰) 삼광(三光)을 받아 간을 출입하는 곳이 따로 있사오니, 대왕이 만일 이 말씀을 믿으시지 아니하실진대 말으시려니와, 그러지 아니 하오시면 소토의 몸에서 적간(摘奸)\*\*\*하옵소서."

용왕이 이 말을 듣고 이상히 여겨 나졸을 명하여 자세히 보라 하니, 과연 간을 출입하는 곳이 따로 있는지라. 용왕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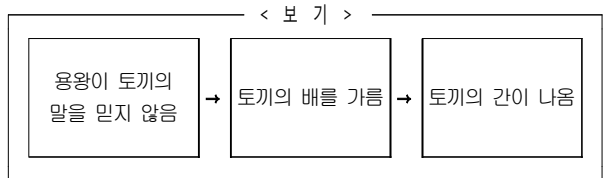
아직 의혹하여 가로되,  
 "㉣ 네 말이, 네 간을 능히 내는 곳이 있다 하니, 도로 넣을 제도 그리로 넣는가?"  
 토끼, 속으로 헤오대 '이제는 내 계교가 거의 맞아 간다.'  
 - 『토끼전』 -

\* 방성(房星) : 이십팔수의 넷째 별자리에 있는 별들. 말의 수호신으로 불리기도 함.  
 \*\* 품부(稟賦) : 선천적으로 타고남. 품수(稟受).  
 \*\*\* 적간(摘奸) : 사실 관계를 밝히기 위하여 살펴 봄.

20. 위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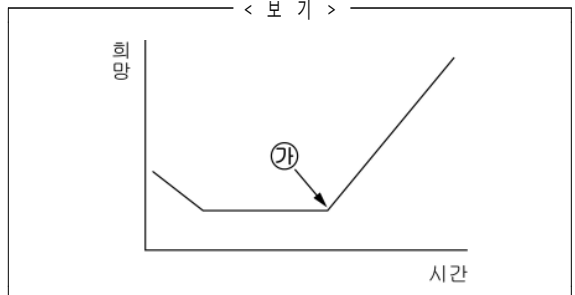
- ① 사건 전개에 우연적 요소가 두드러진다.
- ② 등장인물 간 갈등의 이유가 드러나 있다.
- ③ 두 등장인물에 서술의 초점을 집중시키고 있다.
- ④ 인간 사회의 모습을 우의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⑤ 서술자가 개입하여 사건에 대하여 평가하고 있다.

21. 위 글 이후에 전개될 사건을 <보기>와 같이 가정해 보았을 때, 위 글의 '토끼의 행동'을 평가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 ① 자신의 잘못을 남에게 떠넘기는 것은 옳지 않다.
- ② 사회의 화합을 해치는 이기적 행동을 해서는 안 돼.
- ③ 언제 닥칠지 모르는 위기에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해.
- ④ 남의 도움을 바라지 말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야 해.
- ⑤ 거짓말로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22. 토끼의 심리 변화를 <보기>와 같이 나타내었을 때, ㉠ ~ ㉣ 중, ㉡의 변화를 일으키는 계기가 된 것은?



- ① ㉠      ② ㉡      ③ ㉢      ④ ㉣      ⑤ ㉤

23. [A]에 나타난 토끼의 말하기 방식이 지닌 특징과 효과로 적절한 것은?

- ① 다른 사람의 말을 인용하여 주장의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
- ② 자신이 특별한 인물임을 내세워 상대방의 믿음을 얻으려 하고 있다.
- ③ 자신의 경험으로부터 새로운 사실을 유추하여 설득력을 높이고 있다.
- ④ 말을 장황하게 늘어놓음으로써 위기를 타개할 시간을 마련하려고 하고 있다.
- ⑤ 자신이 처한 상황의 절박성을 강조하여 상대방의 판단 유보를 유도하고 있다.

【24 - 27】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우리는 신문이나 방송, 잡지 등을 보다가 뜻을 잘 모르거나 처음 보는 말을 발견하면 국어사전을 찾는다. 눈에는 익지만 뜻이 불명확해서 사전을 찾는 경우는 대개 사전에서 그 말을 찾을 수가 있다. 그러나 처음 보는 말을 찾으면 사전에 없는 경우가 더 많다.

(나) 사전을 찾아서 나오지 않는 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다. 첫째는 말 그대로 누락된 것이다. 이전부터 많이 써 왔고 지금도 쓰고 있으나 사전 편찬 과정에서 누락된 것이다. '거명(學名)'이 이러한 말에 속한다. '거명되다', '거명하다'는 신문 등에서 흔히 쓰이고 있는 말이나 현재 사전에는 올라 있지 않다. '조울증'도 유사한 경우이다. 의학 전문어이기는 하나 일반인들도 흔히 접하고 사용하는 말인데 현재 사전에는 누락되어 있다. 이러한 말들은 지속적으로 수집하여 사전에 올린다.

(다) 두 번째 경우는 바로 '신어', 즉 새로 생긴 말이다. 사람들이 많이 본 말인데 사전에 없다고 하는 것은 대다수가 이 경우에 속한다, 이는 이전에는 국어 사용자들 사이에서 쓰이지 않다가 특정 시기에 새로 만들어지거나 다른 언어로부터 유입되어 사용되는 말이다. 이런 신어 중에는 사회적인 논쟁거리가 될 만큼 광범위하게 많이 쓰이는 말도 있다. 요즘 어디서나 만날 수 있는 '웰빙(well-being)'이 바로 이러한 말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예인데, 이 단어는 국어사전에는 올라 있지 않다. 이 단어가 외국어를 그대로 쓴 것일 뿐 아니라 계속 쓰인다는 보장이 없으므로, 이 단어가 국어사전에 오를 가능성은 희박하다. 우리가 현재 사용하는 말 중에는 이처럼 소위 '유행어'라고 해서 일시적인 시기에 주로 특정 연령층이나 집단에서 광범위하게 쓰이다 얼마 가지 않아서 사라지는 말들이 많다. 이러한 단어는 일정 기간 동안 아무리 많이 쓰였다 해도 사전에 오르지 않는다.

(라) 신어의 범위를 좀더 확대하면 '옥탑방', '방울토마토', '제대혈' 등과 같은 말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다. '옥탑방'은 요즘 부동산과 관련해서 흔하게 접할 수 있는 말이지만 사전에 없다. ㉠ 원래 건물 맨 위의 공간을 가리키는 '옥탑'이라는 말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방'이라는 말을 결합하여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는 앞서 언급한 '웰빙'과 같은 완전한 신어와는 차이가 나며, 이러한 말은 검토하여 사전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 '방울토마토'는 원래는 없던

사물이 새로 생기면서 말도 따라서 생긴 경우이다. 이러한 말은 이 사물을 지칭하는 말이 필요하기 때문에 검토하여 사전에 오르게 된다. '제대혈'은 이미 있던 사물을 가리키는 것이기는 하나 그동안에는 이 사물을 특정하게 가리킬 필요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잘 쓰이지 않다가 최근 의학 분야에서 주요하게 다루어지면서 많이 쓰이게 된 단어이다. 이 역시 원래 있던 '땃줄'을 뜻하는 '제대(臍帶)'에 피를 뜻하는 '혈(血)' 자를 결합하여 만든 말로, ㉡ (마) 이처럼 사전에 없는 말이라고 해서 모두 지위가 같은 것은 아니다. 어떠한 말은 바로 사전에 등재되기도 하지만 어떠한 단어는 거의 등재될 가능성이 없기도 하다. 또 어떤 단어는 일정한 검토를 거쳐 사전에 오르기도 한다. 그러나 사전에 등재되는 보편적인 기준은 같다. 그것은 그 단어가 얼마나 널리, 그리고 얼마나 지속적으로 사용되는가 하는 점이다.

24. 각 문단의 중심 화제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 찾는 말이 사전에 없는 경우
- ② (나): 사전 편찬 과정에서 누락된 말
- ③ (다): 외국어이기 때문에 사전에 등재될 수 없는 말
- ④ (라): 신어의 다양한 지위에 따른 사전 등재 가능성
- ⑤ (마): 사전 등재의 보편적 기준

25. 위 글의 내용 전개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 ① 특수한 현상에 대한 다양한 해석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 ② 다양한 견해를 소개하면서 자신의 견해를 덧붙이고 있다.
- ③ 추상적 개념을 구체적 대상에 빗대어 쉽게 설명하고 있다.
- ④ 말하고자 하는 바를 구체적 사례를 통해 뒷받침하고 있다.
- ⑤ 핵심 개념을 제시하고 이에 비추어 문제점을 도출하고 있다.

26.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1점]

- ① 새로운 사물을 지칭하는 말이므로 사전에 오를 것이다.
- ② 기존 어휘를 바꾸어 쓴 말이므로 사전에 오르기 어려울 것이다.
- ③ 이 단어가 지속적으로 널리 쓰인다면 사전에 오르게 될 것이다.
- ④ 최근에는 많이 쓰이지 않기 때문에 사전에 오르는 어렵다고 여겨진다.
- ⑤ 의학 전문어에 해당한다는 점이 검증된다면 사전에 오를 가능성이 크다.

27. ㉠ 과 같은 경우로 볼 수 없는 것은?

- ① 꽃미남                      ② 누리꾼                      ③ 불닭
- ④ 답글                        ⑤ 바퀴신발

【28 - 32】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대개의 경우 우리는 그림을 볼 때 당연히 "무엇을 그린 것인가?"라고 묻게 된다. 우리의 일상적인 언어 습관에 따르면, '그리다'라는 동사 자체가 이미 그려지는 대상을 함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어서 우리는 그림을 현실 혹은 허구 속의 대상과 동일시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것만으로도 '재인식'의 기쁨을 맛볼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미로의 <회화>와 같은 작품에는, 우리가 그림을 볼 때 당연히 기대하는 것, 즉 식별 가능한 대상이 빠져 있다. 도대체 무엇을 그린 것인지 아무리 찾아봐도 소용없는 일이다.

(나) '대상성의 파괴'로 지칭되는 이러한 예술 행위는 형태와 색채의 해방을 가져온다. 이제 형태와 색채는 대상을 재현할 의무에서 해방되어 자유로워진다. 대상성에서 해방되어 형태와 색채의 자유로운 배열이 이루어질수록 회화는 점점 더 음악을 닮아간다. 왜냐하면, 음악 역시 전혀 현실을 묘사하지 않는 음표들의 자유로운 배열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저귀는 기계>와 같은 클레의 작품은 음악성을 띠고 있어, 섬세한 감성을 가진 사람은 그림의 형태와 색채에서 미묘한 음조를 느낄 수 있다고 한다. 시인 릴케는 어느 편지에서 "그가 바이올린을 연주한다고 얘기하지 않았더라도, 저는 여러 가지 점에서 클레의 그림들이 음악을 옮겨 적은 것임을 알 수 있었다."라고 말한 바 있다.

(다) 추상화가인 칸딘스키는 <예술에서 정신적인 것에 대하여>라는 그의 저서에서 "노란색, 오렌지색, 붉은색은 환희와 풍요의 관념을 일깨우고 표상한다는 사실을 누구나 알고 있다."라는 들라크루아의 견해, 회화는 이른바 통주저음(通奏低音)을 가져야 한다는 괴테의 견해를 소개하면서 '음악과 회화는 깊은 연관성을 지닌다'고 설명한다. 칸딘스키에 따르면 회화는 그러한 상황에서 추상적 의미로 성장하여 순수한 회화적 구성에 도달하게 되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이 구성을 위해 색채와 형태라는 두 가지 수단이 사용된다는 것이다. 칸딘스키는 특히 점, 선, 면을 회화의 세 가지 요소로 보았다. 미술가 레오나르도 다 빈치는 점, 선, 면, 체를 얘기한 바 있었다. 칸딘스키가 '체'를 제외한 사실은 그의 생각으로는 더 이상 점, 선, 면이 합하여 이루어진 형태가 구체적 대상을 재현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을 시사한다.

(라) 대상을 재현하려 했던 고전적 회화는 재현 대상을 가리키는 일종의 '기호'였지만 재현을 포기한 현대 미술은 더 이상 그 무언가의 '기호'이기를 거부한다. 기호의 성격을 잃은 작품이 논리적으로 일상적 사물과 구별되지 않고, 그 자체가 하나의 아름다운 사물이 되어 버리는 경우도 존재하며, 여기서 현대 예술의 오브제화가 시작된다. ㉠ '오브제'란 예술에 일상적 사물을 그대로 끌어 들이는 것을 말한다. 예술 자체가 하나의 사물이 되어, 작품과 일상적 사물의 구별은 이제 사라지게 된 것이다.

(마) 현대 미술은 그림 밖의 어떤 사물을 지시하지 않는다. 지시하는 게 있다면 오직 자기 자신뿐이다. 여기서 의미 정보에서 **미적 정보**로의 전환이 시작된다. 미술 작품의 정보 구조를 둘로 나눌 수 있는데, 미술 작품의 내용이나 주제에 관련된 것이 '의미 정보'에 해당한다면 색과 형태라는 형식 요소 자체가 가진 아름다움은 '미적 정보'에 해당한다. 고전 회화에서는 의미 정보를 중시하는 데 반해, 현대 회화에서는 미적 정보를 중시한다. 현대 미술 작품을 보고 "저게 뭘 그린 거야?"라고 물으면 실례가 되는 것은 이 때문이다.

28. 위 글을 신문에 기고하고자 할 때, 그 제목으로 적절한 것은?

- ① 현대 회화가 지닌 특징 - 구체적 대상의 재현에서 벗어나
- ② 현대 미술의 동향 - 음악이 그림에 미친 영향, 헤아릴 수 없어
- ③ 현대 미술의 철학적 의미 - 가상현실에 몰입하는 경향을 보여
- ④ 현대 미술의 모든 것 - 새로운 실험 정신, 아직 더 검증받아야
- ⑤ 현대 미술의 현주소 - 추상 미술보다 오히려 진일보한 양상 보여

29. 위 글의 글쓰기 전략을 단락별로 추리해 보았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 일상적 경험과 화제를 결부지어 독자들의 흥미를 유발하고 싶어.
- ② (나):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 예시와 인용의 방법을 활용하면 좋겠군.
- ③ (다): 특정 관점이 시사하는 바가 드러나도록 서술하고 싶어.
- ④ (라): 예상되는 반론을 비판함으로써 주장을 강화해야겠어.
- ⑤ (마): 대조적인 개념을 활용하여 화제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해야겠어.

30. 위 글의 내용에 대한 문제 제기로서 타당한 것은?

- ① 모든 현대 회화 작품이 미적 정보를 중시한 것으로 오해를 불러 일으킬 소지가 있는 것은 아닐까?
- ② 예술적 속성이 서로 다른 회화와 음악으로부터 유사성을 발견하려는 시도는 무의미한 일이 아닐까?
- ③ 엄밀히 말해 현대 미술과 고전 미술은 서로 구분하기 어려운데, 양자를 구분한 것은 어색하지 않을까?
- ④ 미술 작품 감상자의 측면을 도외시한 채 창작자의 측면만 중시한 것은 일방적인 관점에서의 논의가 아닐까?
- ⑤ 일부 현대 화가들은 대상을 재현하려는 의도도 없었겠지만 기교가 부족했기 때문에 추상적인 그림을 그린 것은 아닐까?

31. ㉠의 구체적 사례로 적절한 것은?


- ① 라우션버그는 '침대'라는 작품에서 침대를 그리는 대신, 실제 침대에 페인트칠을 해서 벽에 걸어놓았다.
- ② 드 쿠닝은 그의 작품 '회화'에서 채 마르지 않은 물감이 흘러 내리도록 하여 표현성을 한층 더 강화하였다.
- ③ 에드워드 하퍼는 '이른 일요일 아침'이라는 작품에서 미국 중서부 어느 지방 도시의 일요일 아침 이른 시간 아무도 없는 거리의 풍경을 묘사하였다.
- ④ 잭슨 폴록은 커다란 화폭을 바닥에 놓고 그 주변이나 위를 걸어 다니면서 물감을 뿌리고, 던지고 튕겨 대는 방법을 사용하여 '작품 14번'을 완성하였다.
- ⑤ 마그리트는 그의 작품 '우아함의 상태'에서 타고 있는 담배 위에 자전거가 놓여 있는 모습을 그렸는데, 평소에는 만날 수 없는 두 사물을 붙여 놓는 표현적 효과를 거두었다.

32. [미적 정보]에 대해 탐구하는 과정에서 <보기1>과 같은 자료를 접하였다. 위 글과 <보기1>을 바탕으로 하여 <보기2>를 해석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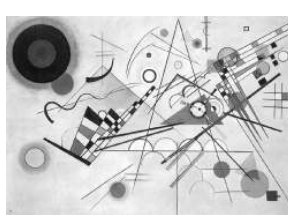
< 보기1 >

사논은 어떤 위치의 정보가 다른 위치의 정보에 대해 갖고 있는 예측의 불확실성 정도를 '엔트로피'로 표현했다. 이 때 불확실성의 정도가 높아지면 엔트로피 역시 증가한다고 했다. 물이나 메이어 등은 '엔트로피'라는 개념을 미술의 영역에 적용하여 미적 정보라는 개념을 만들어냈다. 미적 정보란 미술 작품의 구성 요소들(색이나 형태 등)이 갖고 있는 정보의 불확실성을 일컫는 개념이다. 그리고 미적 정보의 복잡성이란 '색채나 형태가 대상의 사실적 재현에서 벗어난 정도'를 가리킨다.

< 보기2 >



[그림1]



[그림2]

- ① [그림2]는 [그림1]보다 '엔트로피'가 높다고 볼 수 있어.
- ② [그림2]에는 회화의 음악적 특성이 강하게 드러난 것 같아.
- ③ [그림2]는 [그림1]보다 미적 정보가 복잡하다고 말할 수 있지.
- ④ [그림1]은 [그림2]와는 달리 기호로서의 성격이 뚜렷하게 드러나 있어.
- ⑤ [그림1]을 그린 작가는 구체적 대상을 재현하려는 의도가 없는 것 같아.

[ 33 - 36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현대 도시는 공업화의 산물이다. 현대 공업 문명의 상징물로서 거대 도시는 '진보의 신화'를 구현한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보드리야르는 "늑대 소년이 늑대들과 함께 생활하여 마침내 늑대가 된 것처럼, 우리들도 또한 서서히 기능적 인간이 되고 있다. 우리들은 사물의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주장하였다. 도시의 편리한 삶은 결국 수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이루어지는 삶으로 기계화된 현대 사회의 일상이란 분명히 현대 도시의 일상을 가리키는 것이다. 현대인들은 하루 24시간 동안 도시 내의 모든 곳에서 기계의 도움을 받으면서 기계와 함께 살아간다. 그 결과 현대인들은 기계의 기능에 의존할 뿐만 아니라, 그 자신도 익숙해진 기능에 의해 스스로 사회적 기계로 전락하고 만다.

(나) 풍요의 문제도 역시 가난이나 공해와 같은 또 다른 체계의 위험으로 연결된다. 이에 대해서 다시 보드리야르는 "빈곤과 공해를 없애 버릴 수 없다면, 그것은 그 원인이 사회 경제적 구조 속에 있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하였다. 이런 의미에서 도시의 생활이란 기계와 함께 살아가는 것일 뿐만 아니라 빈곤과 공해를 견디며 살아가는 것이기도 하다. 물론 이 경우의 빈곤은 전통적인 의미의 경제적 빈곤에만 국한되지 않고 도시화라는 풍요의 어두운 이면으로, 근대적 의미의 빈곤을 내포하는 것이다.

(다) 도시와 관련하여 특히 두드러지는 근대적 빈곤으로는 공간의 부족을 들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1960년대 프랑스의 일상생활을 분석한 르페브르는 "예전에는 빵이 부족하고 공간은 무제한으로 있었지만, 지금은 빵이 풍족하고 그 대신 공간이 점점 부족해지며, 시간도 점점 부족해진다."라고 하였다. 공간의 부족은 우선 토지의 경제적 가치를 상승시키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에 따라 투기가 발생하기 시작하면 공간의 부족은 한층 더 심해진다. 이 때문에 도시의 건물은 갈수록 하늘을 향한다. 거대 도시의 마천루들은 공학의 위대한 성과이기 이전에 사적 소유의 경제학에서 비롯된 현대의 악몽이다.

(라) ㉠ 이러한 문제들에도 불구하고 근대화의 전개와 더불어 도시는 세계 전역에서 번성해 왔다. 도시화는 수많은 볼거리를 제공하고 장관(壯觀)으로서 사람들에게 다가온다. 문제는 우리 자신이 이러한 볼거리의 관찰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참여자들과 함께 무대 위에 올라 볼거리가 된다는 것이다. 우리 스스로 장관의 구성 요소가 된다는 것은 현실주의의 포로가 된다는 것을 뜻하기도 한다. 이에 대해 드보르는 장관의 사회학적 의미에 대해 "장관이라는 용어 자체에서 알 수 있듯이, 외양의 지배를 선언하며, 모든 인간적 삶, 즉 사회적 삶이 한 것 외양일 따름이라고 단언하는 것이며, 이는 삶에 대한 시각적 부정이자 삶에 대한 부정의 시각화"라고 주장한다.

(마) 도시에서는 고요를 대신하여 소음이, 어둠을 대신하여 불빛이 세상을 지배한다. 이렇게 해서 인간은 24시간 생활할 수 있게 되었지만, 그 대신에 우리가 존중해야만 하는 자연의 요청을 무시하게 되었다. 그 결과 도시에서 우리의 삶은 갈수록 '사이보그'화 되어간다. 삶의 환경이 점점 더 인공화되기 때문에, 자연의 산물로서 인간이 설 자리는 점점 더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 자신이 인공화되어야 할 필요가 커지고, 실제로 인간의 인공화가 빠르게 일상의 현실이 되어 가고 있다. 이에 비해 비도시 지역의 삶은 생태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도시의 지배력은 더욱 더 강화되어 간다. 생태화가 새로운 도시화의 방향으로 제시되기도 하지만, 실상은 도시의 확장 혹은 확산이 더 지배적인 상황이다. 우리의 일상은 그만큼 더 위태로워지고 있다.

33.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1점]

- ① 도시화가 진행됨에 따라 인간은 기능화 된다.
- ② 삶의 환경의 인공화는 인간의 인공화와 관련이 있다.
- ③ 도시의 마천루들은 공간의 경제적 가치를 하락시킨다.
- ④ 근대적 빈곤은 사회 경제적 구조에서 비롯된 현상이다.
- ⑤ 도시화는 인간으로 하여금 불거리의 구성 요소가 되도록 한다.

34. 위 글의 논지 전개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 ① 전문가의 견해를 논거로 삼아 주장 강화하고 있다.
- ② 가설을 설정한 후 구체적 현상을 통해 검증하고 있다.
- ③ 특수한 사회적 현상을 제시하고 그 원인을 분석하고 있다.
- ④ 현상의 문제점을 제시한 후 그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 ⑤ 개별적인 사례들을 분석하여 일반적인 결론을 도출하고 있다.

35. ㉠이 지시하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점]

- ① 도시화에 따른 농촌문제
- ② 공간의 부족에 따른 문제
- ③ 도시 공업화에 따른 문제
- ④ 구조적 모순에 따른 빈곤문제
- ⑤ 사회적 일상의 기계화에 따른 문제

36. 위 글에 <보기>의 내용을 추가하여 활용하기 위한 방안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현대의 거대 도시를 자연의 위협에 완벽히 면역된 인공 공간으로 만들려고 하는 목표는 꿈일 뿐이다. 1979년에서 1998년 사이에 파주, 문산 지역의 농지 978헥타르와 산림 667헥타르가 도시화에 따른 주택과 도로 건설 등으로 사라졌다. 이로써 해마다 950만 톤의 물을 저장하거나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이 사라져서 이 지역의 자연적인 홍수 조절 기능이 지속적으로 약화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 ① (가)에서 공업화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자료로 쓴다.
- ② (나)에서 공해의 심각성을 부각시키는 자료로 제시한다.
- ③ (다)에서 공간 부족의 원인을 보여주는 예시 자료로 활용한다.
- ④ (라)에서 외양에 치우쳐 삶의 본질을 부정하는 자료로 쓴다.
- ⑤ (마)에서 도시화의 위험성을 뒷받침하는 근거 자료로 활용한다.

[ 37 - 41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1세기에 이르러 정보 기술 분야에서 최대의 화두로 떠오른 말은 '유비쿼터스(ubiquitous)'이다. 유비쿼터스라는 말은 '물이나 공기처럼 시공(時空)을 초월해 언제 어디서나 존재한다'는 뜻을 가진 라틴 어에서 유래한 것으로, 정보 통신 분야에서는 언제 어디서든 컴퓨터에 접속할 수 있는 환경을 일컫는다.

어떤 시스템이 유비쿼터스의 성격을 지니는지의 여부를 가릴 수 있는 기준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내재성(內在性)이고 다른 하나는 이동성(移動性)이다. 내재성이란 정보를 분석, 처리, 배분할 수 있는 능력이 단말기 안에 들어 있는 것

을 말한다. 만약 원격의 서버에 의존한다면 그것은 내재성이 없다고 말할 수 있다. 이동성은 기기가 무선이며, 가지고 다닐 수 있다는 것이다. 사용자는 단말기의 위치에 상관없이 정보를 저장하고 교환,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동성은 단순히 무선기기로는 만족되지 않는다. 냉장고가 무선이라고 하여 이를 이동성이 있다고 하지는 않는다. 이동성은 무선성과 휴대성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시켜야 한다. 내재성과 이동성이 두 가지를 만족시킬 때 우리는 이를 유비쿼터스 기술이라고 부른다.

예를 들어 냉장고 안에 주변 기기로부터 온도나 사용자 선호도에 대한 정보를 받아서 온도를 조절하는 자동 제어장치가 있다고 하자. 이것은 내재성이 있다고 할 수는 있지만 이동성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 가장 자동화 시스템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가정 자동화 시스템에서는 집안에 있는 여러 센서들이 서로 의사소통을 하면서 어떤 작업을 한다. 도둑이 들어왔다는 신호를 보내거나, 주인이 들어오기 전에 집안을 따뜻하게 할 수 있다. 각각의 기기들이 정보처리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기기들은 이동성이 없다. 반면, 이동성만 존재하고 내재성은 지원되지 않는 기기는 단순히 서버로부터 정보를 수신하는 이동성 기기에 불과하다. 원격의 서버에서 정보를 가지고 오는 기능만 있는 휴대 전화가 그 예이다. 이러한 경우들에 대해서는 유비쿼터스 컴퓨팅으로 구현되어 있다고 할 수 없다.

어떤 기기가 스스로 서버의 역할을 하되 그 일부가 휴대 가능하고 무선을 지원하게 될 때, 우리는 그것을 '유비쿼터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심장이 나쁜 사람에게 심장의 고동이 이상해지면 왜 그런지 바로 원인을 가르쳐 주는 ㉡ 컴퓨터 센서를 체내에 이식하고 비상 신호를 울리게 해놓는다고 하자. 그렇게 되면 산책 중에 심장의 고동이 약간이라도 이상해질 경우 그 신호가 담당 병원에 그대로 전달되어 구급차가 출동한다. 이런 경우 센서는 이동성과 내재성이 있으므로 유비쿼터스 시스템에 해당한다.

유비쿼터스 시스템의 목표는 정확한 정보를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어떤 기기를 통해서라도 필요한 사람에게 제공하되, 가장 자연스러운 정보 접속을 실현하는 데 있다. 자연스러운 정보 접속이란 ㉢ 그 사람이 평소에 익숙한 방식으로 정보를 접속하게 함으로써, 과거에 새로운 기술이 등장할 때마다 사람이 새로운 접속 방식을 익혀야 했던 불편함에서 벗어나게 해 주는 것이다. 따라서 유비쿼터스 컴퓨팅은 공기와 같이 또는 큰 저택에서 일하는 집사와 같이 보이지 않게, 그러나 지능적이고 선응적(先應的)으로 고품질의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을 이상으로 삼는다.

유비쿼터스 사회는 인류의 생활을 보다 편리하고 자유롭게 만들 것이다. 그러나 그런 사회를 생각했을 때 사람들이 염려하는 바가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 비가시성(非可視性)이다. 비가시성은 내가 존재하는 환경 뒤에서 누군가가 나에게 대한 정보를 검색하고 교환하며 작업을 하고 있는데 당사자는 그것을 잘 알 수 없는 현상이다. 기기들이 나에게 대한 정보를 처리하고 있는데 내가 그것을 볼 수 없다면 나는 불안해질 수밖에 없다. 특히 허락되지 않는 제3자에게 나에게 대한 정보가 알려지고 그것이 불법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이른바 정보의 비대칭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될 수 있다.

\* 선응적(先應的) : 앞을 내다보고 행동하는, 미리 대책을 강구하는

37. 위 글을 읽고 답변할 수 없는 질문은?

- ① 유비쿼터스의 개념은 무엇인가?
- ② 유비쿼터스 시스템이 지향하는 바는 무엇인가?
- ③ 유비쿼터스 사회의 구현을 촉진하는 방안은 무엇인가?
- ④ 유비쿼터스 시스템이 상용화될 수 있는 예로는 어떤 것이 있는가?
- ⑤ 유비쿼터스 시스템이 구현된 사회에서 우려되는 문제점은 무엇인가?

38. ㉠, ㉡가 들어갈 위치로 적절한 것은?

이동성 \ 내재성	있음	없음	①	㉠	㉡
	㉠	㉡	②	㉢	㉣
있음	㉢	㉣	③	㉤	㉥
없음	㉤	㉥	④	㉦	㉧
			⑤	㉨	㉩

39. 유비쿼터스에 관한 다큐멘터리 5부작을 제작하려고 한다. 위 글에 비추어 예고편의 문구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제목 : 유비쿼터스 대혁명!**

<인간에 의한 컴퓨터>에서 <인간을 위한 컴퓨터>로

- ① 제1부 : 공기, 물 그리고 유비쿼터스... 언제 어디서나 쉽게 접속한다. → 더 이상 컴퓨터를 쓰기 위해 책상에 앉지 않아도 된다. 유리창, 커피 테이블, 심지어 옷에까지... 컴퓨터는 모든 공간과 사물에 숨겨져 있어, 인간이 모르는 사이에도 인간을 위해 지능적으로 서비스를 한다.
- ② 제2부 : 걸어다니는 인간 통신망. → 이전 기지국이 필요없다. 인간의 몸을 통해 통신하는 방법을 개발했기 때문이다. 피의 전도체 성분을 이용해 전기신호를 전달하기도 하고, 팔과 신경조직에 칩을 심어 외부환경을 조정하기도 한다.
- ③ 제3부 : 휴먼 컴퓨터, 인간의 방식으로 대화한다. → 컴퓨터 공부를 하지 않아도 디지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 눈으로 타 이핑하는 팔 없는 변호사, 호흡 하나로 모든 활동을 통제할 수 있는 전신마비환자. 이들에게 휴먼 컴퓨터는 마음이자 삶이다.
- ④ 제4부 : 컴퓨터가 당신의 건강을 지킨다. → 생활 곳곳에 내장된 컴퓨터는 당신의 몸 상태를 철저히 점검한다. 약병을 열면 약의 부작용을 알려주고, 옷을 입으면 체온을 조절해 준다.
- ⑤ 제5부 : 모바일 서비스가 삶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 통신과 방송의 융합으로 위성 및 지상파 DMB 기술도 차 안에 들어왔다. 이제 이동 중에도 차량용 단말기를 통해 DVD급의 고음질·고화질 방송을 즐길 수 있다.

40. ㉠의 상황을 나타낼 수 있는 속담은?

- ① 제 버릇 개 줄까.
- ② 고기도 저 놀던 물이 좋다.
- ③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 한다.
- ④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 ⑤ 소도 비빌 언덕이 있어야 비빈다.

41. ㉠을 보여주는 예로 적절한 것은? [1점]

- ① 회사 사장이 안경에 초소형 화면표시장치를 부착하고 다닌다면, 부하 직원과 마주친 순간 그 사람의 이력을 전부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다.
- ② 외부 사람이 일반 사원에게 "사장님의 연봉은 얼마입니까?"라고 질문한다면, 사원은 "그런 것은 가르쳐 줄 수 없습니다."라고 대답할 것이다. 이러한 일을 컴퓨터가 대행한다.
- ③ 에어백은 체격이 큰 남자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을 때나 시속 40km 이상으로 충돌했을 때는 고압으로 크게 터지지만, 어린이나 체격이 작은 여성에게는 저압으로 작게 터진다.
- ④ 쓰레기가 될 가능성이 있는 물건에 컴퓨터를 이식해 놓으면, 이 물체들은 소각로에 부착된 컴퓨터와 교신하여 "지금 저를 태우면 유독 가스가 발생합니다."와 같은 말을 할 것이다.
- ⑤ 전용 의복과 장갑, 헤드셋을 부착하고 가상현실의 세계로 들어가면, 주위 사람들에게는 그 세계가 전혀 보이지 않지만, 당사자는 공중에 뭔가 물건이 있고 그것을 잡을 수도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

**[ 42 - 45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그리스 인과 로마 인들이 지어낸 수많은 신화는 그들의 사고 방식과 예술 작품을 이해하는 데 역사만큼이나 중요하다.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범위를 ㉠ 뛰어넘은 것도 있기는 하지만, 그들의 신화는 그리스와 로마의 사회 제도 및 구조와 매우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이다. 만약 이들 신화가 없었다면 현대인들은 그리스·로마 시대 이후의 문화를 이해하기가 무척 어려웠을 것이다. 고대 상상력의 산물인 이러한 신화들은 후대의 독창적 작품에 영감을 불어넣는 데 끊임없이 이용되어 왔고, 이러한 작품들은 세계의 전체 문화유산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때로는 개작한 작품들과 응용 작품들이 등장인물과 작품의 진의(眞意)면에서 원전의 전통과 아주 동떨어진 것처럼 보일 때도 있지만, 그 작품들 역시 고대의 원전에 직접적으로 뿌리를 둔 것이며 원전 없이는 생각하기 힘들다.

현대에 와서 많은 국가들은 그들의 국가에 적합한 신화를 만들어내고 있는데, 이것은 예전에는 결코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이다. 또한 20세기 작가들은 비극으로부터 신문의 연재 만화에 이르기까지 참신하고 역동적인 작품을 창작하고 있다. 그리고 이렇게 형성된 신화와 작품의 뿌리에는 고대 신화의 원형들이 존재한다. 이처럼 끊임없는 탐구 과정을 거쳐 작품으로 변용되어 온 고대 신화들은 다원화된 세상에서 인간이 추구하는 삶의 보편적 진실들을 찾아가는 실마리가 되고 있다.

그리스·로마 신화가 전달해 주는 신비롭고 낭만적인 분위기는 인간의 삶을 한 단계 고양시켜 준다. 그 이유는 그것이 인간들에게 건디기 힘든 일상으로부터의 탈출구를 제공함으로써 새로운 힘을 주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흔히 말하는 현실도피와 같은 것은 아니다. 이것이 인간의 평범한 삶을 지배하는 실재보다 훨씬 인상적인 다른 실재로 안내해 주기 때문이다. 때로 이 신화들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능동적일 경우에는 신화들은 강력하게 작용하여, 빛나는 보편적인 진실들을 만들어내고 발산시키기도 한다. 현대인들이

인식하고 있는 한 그러한 진실들이 그리스 인이나 로마인들이 자신의 신화에서 보았던 종교적인 진실들은 물론 아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때로는 거센 힘으로 사상과 감정에 여전히 영향을 주고, 인간 삶의 여러 국면들을 조명하는 진실로서 가치가 있다.

그리스·로마 신화는 현실성이 부족하고 시사성(時事性)도 떨어지기 때문에 합리성에 의존한 논리적인 인식 수단으로 파악하기는 매우 어렵다. 그렇다고 이를 한 시대의 유물로 고착시키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왜냐하면 신화는 현재와 관련이 있는 만큼 다른 시대와도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물론 신화가 먼 과거의 어떤 틀 안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신화는 여전히 다른 시대에 지속적으로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 그리스·로마 신화는 기원이나 형태는 고대의 것이지만 그것이 인간과 맺고 있는 연관성은 현재에도 여전히 강력하다.

신화가 지니는 이미지들은 일단 인간의 지각을 자극하면, 시간의 제약을 넘어 눈에 보이지 않는 새로운 차원의 것으로 바뀐다. 우리는 그리스·로마 신화를 읽음으로써 그리스인과 로마인들이 만들어 놓은 흥미롭고 초자연적인 차원의 세계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 이 신화의 세계는 끝이 없는 광대한 바다이며, 시간과 공간이 사라진 무차원의 광장이다.

42. 그리스·로마 신화에 대한 글쓴이의 견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점]

- ① 힘든 일상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준다.
- ② 삶의 진실을 깨닫는 실마리를 제공한다.
- ③ 그리스와 로마의 문화 이해에 도움을 준다.
- ④ 사회 현실에 대한 비판적 관점을 제시한다.
- ⑤ 적극적 수용자에게는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

43. ㉠과 바꿔 쓰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 ① 초월(超越)한      ② 초탈(超脫)한      ③ 초극(超克)한
- ④ 초연(超然)한      ⑤ 초과(超過)한

44. ㉡의 구체적인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점]

- ① 태양계 행성에서 가장 밝게 빛나는 금성을 비너스라고 부른다.
- ② 남해안의 많은 지역에서는 아직도 풍어제나 기우제를 지내고 있다.
- ③ 사랑에 빠진 사람을 비유적으로 큐피트의 화살을 맞았다고 표현한다.
- ④ 헤라클레스나 아킬레스 이야기를 담은 만화나 영화가 인기를 끌고 있다.
- ⑤ 세계적인 스포츠 용품 제조 회사 중에는 이름을 승리의 여신에서 따온 것이 있다.

45. <보기>를 읽은 독자가 위 글에 대해 보일 수 있는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보 기 >

로마의 신 중에는 그리스 신화에는 등장하지 않는 '콘코르디아'란 신이 있다. 조화, 융화, 협조란 뜻의 여신인 '콘코르디아'는 로마에서 귀족계급과 평민계급이 화해한 것을 계기로 만들어졌다. 또 '비리프리카'란 신은 부부싸움을 관장하는 여신인데, 이 여신상 앞에서 부부가 한사람씩 자기 주장을 말하면서 서로의 주장을 들으면 자신의 잘못을 깨닫는다고 한다. 부부싸움이라는 실생활을 주관하는 여신을 만든 로마인의 생각이 매우 독특하다. 그리고 그리스와는 달리 로마의 신은 윤리를 주관하지는 않는다. 물론 나쁜 사람에게 신이 벌을 준다는 신화는 있지만, 말 그대로 신화에 불과하다. 로마에서 윤리는 신화보다는 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다.

- ① 다른 지역의 신화와 그리스·로마 신화에 나타난 공통점을 언급하지 않았군.
- ② 문학 작품이 그리스와 로마인의 가치관 형성에 끼친 영향을 탐색하지 않았군.
- ③ 사회 계층에 따라 신화의 내용에 접근하는 태도가 다르다는 것을 놓치고 있군.
- ④ 그리스와 로마의 문화 차이로 인해 나타난 두 신화의 차이점을 고려하지 않았군.
- ⑤ 그리스·로마 신화가 현대인에게 주는 긍정적 측면만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군.

【46 - 50】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 줄거리>

나는 할아버지 제사 때문에 8년 만에 제주를 방문했다가 순이삼촌이 자신의 옴팡밭에서 자살했음을 알게 된다. 순이삼촌은 일 년간, 내 집에서 부엌일을 하다가 두 달 전에 귀향한 친척이다. 이를 계기로 나는 마을사람들과 30여 년 전에 고향 마을에서 벌어진 비극적인 사건을 떠올린다. 30여 년 전 군경은 공비들을 토벌하기 위해 무리하게 작전을 벌여 마을 사람들 오륙백 명을 사살한다. 그 때 순이삼촌네 옴팡밭에 끌려간 사람들 중에 순이삼촌만이 살아남는다. 그러나 순이삼촌은 그 때에 자식들을 잃고 만다. 그 후에 순이삼촌은 온갖 고초를 겪은 후, 공비들을 대비하여 세운 전략촌에서 생활하게 된다.

어려운 시절에 아기를 가진 삼촌은 먹을 것을 구하느라고 그야말로 눈이 별개 있었다. 만식의 몸이라 물질은 못하고 하루 종일 땀벌레 갯가를 기어다니며 굴, 성계를 까먹고, 게, 보말 따위를 잡았다. 밤에 초소막에 나올 때는 보말(갯우렁이) 삶은 것 한 채롱 가득 삶아가지고 와서는 우리에게 먹여보라는 말 한마디 없이 밤새도록 혼자서 걸구처럼 까먹어 대곤 했다. 여자가 아기를 배면 사정없이 먹어댄다는 걸 몰랐던 나는 순이삼촌이 걸신들려 실성하지 않았나 생각할 지경이었다.

㉠ 이런 전략촌 생활은 거의 일 년 넘게 계속되었지만 그동안 한 번도 공비의 습격을 당한 적이 없었다.

한번은 밤중에 성문계에서 무언가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나서 모두 혼비백산한 적이 있었지만, 그건 나중에 알고 보니 낮에 들에서 농친 누구 집 소가 밤에 제 밭로 성까지 걸어와서 부스럭거리고 있었던 것이었다. 결국 해안지방의 축성은 과잉조처라는 게 판명된 셈이었다. 이미 몇 십 명으로 전력이 크게 줄어든 입산폭도들은 해안지방을 약탈할 능력이 전혀 없었다.

부락민들은 일 년이 넘도록 한 번도 써먹어본 일이 없는 무용지물의 성을 다시 허물고 제각기 제 집터로 돌아갔다. 성을 허문 돌을 날라다가 다시 울담과 벽을 쌓고 새로 집을 지었다. 집이라고 해야 방 하나에 부엌 딸린 두 칸짜리 함바집이었다. 못이 없어서 대신 굵은 철사를 잘라 썼으니 오죽한 집이었을까? 순이삼촌도 우리 큰집에서 몸을 풀고 큰아버지의 도움을 받아 불탄 집터에다 조그만 오두막집을 지어 올렸다. 그러나 일가족이 전부 몰살되어 집을 세우지 못하 채 그대로 방치된 집터도 더러 있었다.

그 무렵 내 또래 아이들은 사람 죽은 일주도로변의 옴팡밭에서 탄피를 주워다 화학총을 만들기가 유행이었다. 아이들은 이제 옴팡밭의 비극을 까맣게 잊고 사람 죽인 탄피를 주워 모았다. 그렇다. 무력무력 자라는 데 도움 안 되는 것은 무엇이든 편리하게 잊어버리는 게 아이들의 특성이 아닌가. 그러나 어른들은 도무지 잊을 수 없었다. ㉠ 아이들이 장난으로 팡팡 쏘아대는 화학총 소리에도 매번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그들이었다. 어떤 아이는 어디서 났는지 불에 타서 엇가락처럼 휘어진 총신만 남은 구구식 총을 끌고 다니다가 제 아버지한테 얻어맞고 빼앗겼는데, 총의 그 푸르딩딩한 탄쇠빛은 꼭 죽은 피 빛깔을 연상시켜주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순이삼촌만큼 후유증이 깊은 사람은 없었으리라. 순이삼촌네 그 옴팡진 돌짜밭에는 끝까지 찾아가지 않는 시체가 둘 있었는데 큰아버지의 손을 빌려 치운 다음에야 고구마를 갈았다. 그해 고구마농사는 풍작이었다. ㉡ 송장거름을 먹은 고구마는 목침덩어리만큼 큼직큼직했다.

더운 여름날 당신은 그 고구마밭에 아기구덕<sup>\*\*</sup>을 지고 가감을 매었다. 옴팡진 밭이라 바람이 넘나들지 않았다. 고구마 잎줄기는 후줄근하게 늘어진 채 곰썩도 하지 않았다. 바람 한 점 없는 대낮, 사위는 언제나 조용했다. 두 오누이가 문헌 봉분의 뗏장이 더위 먹어 독한 풀냄새를 내뿜었다. 돌담 그늘에는 구덕에 아기가 자고 있었다. 당신은 아기구덕에 까마귀가 날아들까봐 힐끗힐끗 눈을 주면서 가감을 매었다. 이랑을 타고 아기구덕에서 아득히 멀어졌다가 다시 이랑을 타고 돌아오곤 했다. 호미 끝에 때때로 흰 잔뚱아 튀겨 나오고 녹슨 납탄환이 부딪쳤다. ㉢ 조용한 대낮일수록 공 북는 듯한 총소리의 환청(幻聽)은 자주 일어났다. 눈에 띄는 대로 주워냈건만 잔뚱아 납탄환은 삼십년 동안 끊임없이 출토되었다. 그것들을 밭담 밖의 자갈더미 속에다 묻었다.

그 옴팡밭에 불박인 인고(忍苦)의 삼십년, 삼십년이라면 그럭저럭 잊고 지낼 만한 세월이건만 순이삼촌은 그렇지 못했다. 흰 뚱아 총알이 출토되는 그 옴팡밭에 밭이 묶여 도무지 벗어날 수가 없었다. 당신이 밭에 모르게 서울 우리 집에 올라온 것도 당신을 붙잡고 놓지 않는 그 옴팡밭을 팽개쳐보려는 마지막 안간힘이 아니었을까?

그러나 오누이가 묻혀 있는 그 옴팡밭은 당신의 숙명이었다. 깊은 소(沼) 물귀신에게 채여가듯 당신은 머리고덩이를 잡혀 다시 그 밭으로 끌리어갔다. 그렇다. 그 죽음은 한 달

전의 죽음이 아니라 이미 30년 전의 해묵은 죽음이었다. 당신은 그때 이미 죽은 사람이었다. 다만 30년 전 그 옴팡밭에서 구구식 총구에서 나간 총알이 30년의 우여곡절한 유예(猶豫)를 보내고 오늘에야 당신의 가슴 한복판을 꿰뚫었을 뿐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마무리 짓고 나자 나는 문득 담배 피우고 싶은 충동이 조바심치듯 일어났다. 좌중은 어느 틈에 나만 빼놓고 농사얘기로 돌아서져 있었다.

"올해는 제발 작년모양 감저 시세가 폭락하지 말았으면 좋을리고..... 빌어먹을, 그놈의 가을장마는 똥금없이 터져가지고는 썰어 말리던 감저에 곰팡이 피어부렸이니....."

나는 밖으로 나와 마당귀에 있는 조짚가리에 등을 기대고 담배를 피워 물었다. 마당에 얇게 깔린 싸락눈이 바람에 이리저리 쓸리고 있었다. 음력 열여드레 달은 구름 속에 가려 있었지만 주위는 희고무레 밝았다. 고살길로 지나가는 사람들의 기척이 들려왔다. ㉣ 아마 두어 집째 제사를 끝내고 마지막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리라.

- 현기영, 『순이삼촌』 -

\* 삼촌 : 제주에서 촌수 따지기 어려운 먼 친척 어른을 남녀 구별 없이 흔히 부르는 호칭  
\*\* 아기구덕 : 제주에서 아기를 눕혀 재우는 요람

46. 위 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인물 간의 갈등을 중심으로 서술하고 있다.
- ② 과거를 회상하는 형식으로 사건을 서술하고 있다.
- ③ 서술자의 심리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 서술하고 있다.
- ④ 사건의 상황에 따라 서술자를 달리하여 서술하고 있다.
- ⑤ 작품 밖 서술자가 관찰한 사건을 위주로 서술하고 있다.

47. 위 글의 내용을 바탕으로 ㉠ ~ ㉣에 대해 설명한 것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점]

- ① ㉠ : 군경측이 공비들에 대비해 당시에 취한 조치가 과도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 ② ㉡ : 마을 어른들이 옴팡밭 사건의 충격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 ③ ㉢ : 순이삼촌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암시적으로 드러냈음을 짐작할 수 있다.
- ④ ㉣ : 순이삼촌이 과거의 아픈 기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 ⑤ ㉣ : 당시에 마을 사람들이 같은 날에 많이 죽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48. <보기>는 기자가 위 글의 작가와 나눈 가상 인터뷰이다. 위 글의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것은? [3점]

< 보 기 >

기자 : 이 작품을 쓰게 된 동기는 무엇입니까?  
 작가 : 30여 년 전 제주도에 있었던 역사적 사건을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 ①

기자 : 지금까지 다루어지지 않았던 제주도 4·3사건을 굳이 소설의 제재로 사용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작가 : 우리는 세월의 흐름 속에서 지나간 역사를 잊곤 합니다. 저는 그 잊혀진 역사적 사실을 작품화하고 싶었습니다. .... ②

기자 : 작품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구상하는 데 가장 신경을 쓴 부분은 무엇입니까?  
 작가 : 비극적인 사건을 일으킨 사람들의 실체를 규명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 ③

기자 : 이 작품을 형상화하는 데 특별히 고려한 점은 무엇입니까?  
 작가 : 당시 제주도의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인물을 통해서 시대적 상황을 형상화하고 싶었습니다. .... ④

기자 : 마지막으로 이 작품을 읽는 독자들에게 바라는 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작가 : 지나간 역사는 현재와 이어져 있다는 점을 알아주었으면 합니다. 지금까지도 여전히 그 아픔이 계속되고 있다는 거죠. .... ⑤

49. '순이삼촌'이           에게 편지를 썼다고 가정할 때, 위 글의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것은? [1점]

사랑하는 딸에게

되돌아보면 참으로 힘들고 고단한 30년이었구나. ① 너의 언니와 오빠를 저 세상으로 떠나보낸 후에, 내 삶은 엉망이 되었지. ② 그래도 살아보겠다고 먹을 것을 찾아 바닷가를 헤맸던 때도 있었다. ③ 그 때 내가 죽지 않은 이유는 바로 뱃속에 네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 후의 삶은 네가 더 잘 알 것이다. ④ 한평생 고향을 떠나지 못한 채 지내지 않았니? ⑤ 나는 이제 스스로 인생을 마감하려 한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내 행동을 네가 이해해 주리라 믿는다.

50. <보기>는 위 글을 읽고 '순이삼촌'에게 '옴팡발'이 주는 의미에 대해서 토론한 내용이다. 적절한 의견으로만 묶은 것은?

< 보 기 >

ㄱ. 순이삼촌은 그곳에서 죽음의 위기를 겪었다는 점에서 공포의 공간이지.

ㄴ. 순이삼촌은 죽은 오누이를 옴팡발에 묻었다는 점에서 한스러운 공간이지.

ㄷ. 순이삼촌이 옴팡발을 통해 생계를 이어왔다는 점에서 과거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해주는 공간이지.

ㄹ. 순이삼촌은 옴팡발에서 벗어나려고 했지만 끝내 벗어나지 못했다는 점에서 피할 수 없는 운명의 공간이지.

-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ㄹ                      ③ ㄱ, ㄷ, ㄹ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51~5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숫자[數字]가 없었던 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셈을 했을까? 그들은 자기 소유하고 있는 가축의 수를 알아볼 필요가 있을 때 나무토막에 눈금을 새겼다. 양 한 마리마다 눈금 하나씩을 일대일(一對一)로 대응시켜 그 수를 확인하였던 것이다. 때로는 작은 돌멩이를 부대에 넣어 가지고 다니면서 양의 수를 세곤 하였다. 그러다가 마침내 양 한 마리나 막대 눈금 하나나 작은 돌멩이 하나가 전부 같다는 생각에 이르게 되고, 이를 하나의 기호로 표시하게 되었다. 이는 여러 개의 사물 혹은 사실 사이의 공통된 성질을 알아내고, 그러한 성질을 물건 다루듯이 하면서 비로소 숫자라는 기호가 탄생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숫자의 표기 방법은 십진법으로 모아졌는데, 이는 셈을 할 때 이용하던 우리 신체와 관련이 깊다. 그리고 십진법으로 표현하는 방법도 변해갔는데, 이는 숫자의 이용 빈도와 무관하지 않다. 고대 이집트에는 지금의 1, 10 등에 해당하는 숫자가 있었다. 이 숫자로 37을 나타내려면 10과 1에 해당하는 숫자를 각각 세 번, 일곱 번씩 적으면 된다. 로마 숫자는 이집트와 유사하지만 5, 50 등에 해당하는 숫자가 있어, 숫자를 다섯 번 이상 반복하여 적는 불편이 없었다. 중국에서는 1부터 10까지에 해당하는 기본 숫자를 두었기 때문에 37을 표기하고자 할 때는 3과 10, 7을 나타내는 숫자를 연이어 적으면 되었다. 이와 같은 숫자 표기 방법은 숫자의 위치와 관계없이 항상 같은 값을 갖는 절대적 기수 표기법이었다. 그러다가 인도 사람들에 의해 위치적 기수 표기법이 등장하게 된다. 37을 나타낼 때, 굳이 10이 세 개라고 명시하지 않아도 10의 자리에 3이 있기 때문에 30임을 알 수 있게 된 것이다.

① 수(數)는 당대의 정신이나 가치관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러나 숫자의 세계는 실험이나 관찰의 대상이 되는 물리적 현상이 아니라 관념적 기호의 세계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 이런 연유에서 숫자는 두 가지 중요한 특성이 있다. 그 하나는, 숫자는 사물의 물리적인 성질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점이다. 그러면서도 숫자는 사물과 관련되어서는 아주 편리한 기호이기도 하다. 백화점의 옷에 붙어 있는 숫자(가격표)는 누가 무엇을 사건, 계산대의 종업원이 그것을 보고 계산기를 두드리기만 하면 되는 편리한 기호이다. 다른 하나는, 이 기호를 써서 연산을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연산은 숫자 사이에서만 이루어진다. 물건 값을 셈하는 가게주인은 과일이나 빵등을 더하거나 빼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각 물건들과 관련된 숫자를 셈하고 있는 것이다.

숫자의 세계는 분명 인간 사고의 산물인 관념의 세계이다. 그렇지만 숫자가 이만큼 편리하다는 것은 기호라는 가공의 세계가 현실의 세계에 대해 그만큼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된다. 숫자는 보지도 만지지도 못하는 한낱 기호에 지나지 않지만, 연산으로 서로 굳게 뭉쳐 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숫자는 현실 세계에 못지않은, 생동하는 독립적인 세계를 이루고 있다. 그림자와 같은 기호에 지나지 않으면서도 동시에 독자의 생명을 지닌 존재, 관념과 현실의 세계를 넘나드는 양면성을 지닌 야누스적인 존재가 숫자이다. 실제로 아무 형상도 갖고 있지 않은 수는 숫자라는 매개체를 통하여 그 신비성을 우리에게 드러낸다.

51.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1점]

- ① 중국의 숫자 표기 방법은 오진법이였다.
- ② 숫자가 생기면서 사람들은 셈을 하기 시작했다.
- ③ 수의 연산은 물건이 아니라 숫자 사이에서 이루어진다.
- ④ 물건으로 셈하는 것이 숫자를 이용하는 것보다 편리하다.
- ⑤ 고대 이집트의 숫자 표기 방식이 로마의 방식보다 간편했다.

52. <보기>는 위 글을 읽으면서 생긴 의문들을 정리한 것이다. 추론을 통해 얻은 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숫자가 왜 필요했을까?

①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물건들이 있잖아. 이것을 확인하거나 타인에게 나타낼 필요가 있었을 거야.

↓

숫자의 표기법이 왜 십진법으로 되어 있을까?

② 우리가 셈을 할 때, 보통 이용하는 것이 손가락이잖아. 아마도 이 손가락의 개수에서 비롯되었을 거야.

↓

숫자의 표기법이 왜 변해 갔을까?

③ 시대가 변천해 가면서 숫자를 표기해야 할 일이 점점 많아졌잖아. 이 점을 고려한 표기상의 효율성 때문일 거야.

↓

숫자의 세계를 왜 관념적 기호의 세계라고 했을까?

④ 숫자는 사물에 상관없이 개수만을 나타내잖아. 이처럼 숫자는 사물의 물리적 성질과는 관련이 없어서일 거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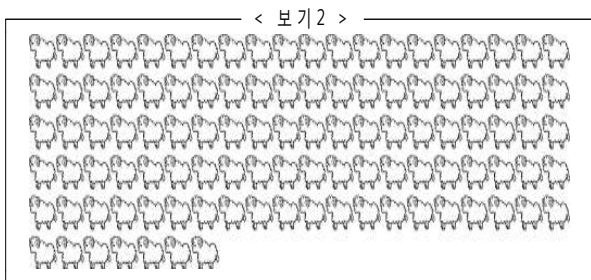
숫자를 왜 양면성을 지닌 야누스라고 했을까?

⑤ 숫자는 내용과 형식으로 되어 있잖아. 이런 두 가지 측면 때문에 그렇게 표현했을 거야.

53. <보기1>의 조건에 따라 새로운 숫자를 만들어, <보기2>에 해당되는 '양'의 수를 표기해 보았다. 적절한 것은?

< 보기 1 >

- 숫자는 총 10개만 만들고, 십진법을 이용할 것.
- 위치적 기수 표기법을 사용할 것.



-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54. <보기>를 이용하여 '숫자의 탄생 과정'을 정리했을 때,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 보기 >

ㄱ. 대상간의 공통점 추출

ㄴ. 세는 척도와 물건의 대응

ㄷ. 기호화

- ① ㄱ → ㄴ → ㄷ
- ② ㄱ → ㄷ → ㄴ
- ③ ㄴ → ㄱ → ㄷ
- ④ ㄴ → ㄷ → ㄱ
- ⑤ ㄷ → ㄴ → ㄱ

55. ㉠의 사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점]

- ① 바빌로니아인들은 원에서 'π'를 '3.125'로 추정하여 계산하였다.
- ② 음양 사상에 익숙한 중국에서는 음수와 양수를 서양보다 일찍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다.
- ③ 3 이상의 수에 대한 필요를 느끼지 않았던 오스트레일리아와 뉴기니아 지방의 원주민은 삼진법을 사용하였다.
- ④ 불교를 태동시킨 인도에서는 '공(空)'의 개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0'이라는 수를 쉽게 생각할 수 있었다.
- ⑤ '0'이 양수와 음수의 기준이라고 생각하여 유럽 사람들은 건물의 로비를 0층으로 정하고 지상층과 지하층을 구분하였다.

[ 56 - 60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A]** 릴케가 로망을 말한 것 중에 이런 말이 있다. "로망은 자기의 명성을 얻기 전에 고독하였다. 이윽고 그가 얻은 명성은 아마도 그를 더욱 고독케 하였다. 명성이라는 것은 결국 새로운 이름, 주위에 모여든 모든 ㉠ 오해의 총체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이 말은 명성이란 괴물의 정곡(正鵠)을 찌른 것 같다. 명성이란 대개의 경우 명성을 얻은 본인과 떨어진 곳에 있다. 진가를 인정받는 것과 인기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수가 많다. 빛나는 명성을 떨치는 사람이 밀린 쌀값을 갚지 못하여 싸전 주인에게 시달리는 일은 얼마든지 있다. 빛나는 이름이 그의 ㉡ 생활을 빛나게 하는 윤기라고 단정할 수 없다.

명성이 높은 건축가의 자택을 방문하고 기이한 느낌을 가졌던 일을 잊을 수 없다. 합리적인 주택의 설계자로서 명성에 비하여 그의 집은 어둡고 불편하고 전근대적이었다. 단순하던 나는 모순을 느끼기 전에 실망을 느꼈다. 명성이란 속성이 아니고 그것만으로도 독립된 존재이며 그것대로의 성격을 갖는 모양이다. 명성은 그것을 얻은 사람에게 영광을 주기보다는 그 사람을 ㉢ 구속하는 창살이 되고 만다. 조금이라도 명성을 얻은 사람은 명성의 크고 작음에 따라 공간을 좁혀야 한다. 돌레가 자유로운 공간이 아니고 둘러쳐진 거울로 변하는 것이다.

보통 사람이 식사 중에 어쩌다 밥풀을 흘릴 때는 흥이 되지 않아도 명성을 가진 사람이 같은 실수를 하는 경우에는

흥까지는 안가더라도 화제가 되는 수가 많다. 명성이란 사람을 안에 가두고 생활을 좁히려는 것이다. 명성이란 따지고 보면 ㉠ 실질을 상반(相伴)하지 않는 존재에 불과한 것이다.

옛날에 어떤 고승이 권문세가의 청에 못 이겨 그 집에서 법사를 하게 되었다. 약속한 시간보다 먼저 고승은 우정 다 떨어져 살이 드러나는 가사에 껌질만 벗긴 구부렁 생나무 지팡이를 들고 그 집을 찾았다. 고승을 맞을 준비로 안팎을 청소하고 있던 집안 사람들은 보시를 청하는 결승(乞僧)을 부정하다고 몽둥이질까지 하여 내쫓았다.

알마 후에 사인교(四人轎)\*\*에 올라 탄 고승의 일행이 화려하게 당도하였다. 황공하게 고개 숙이며 맞이하는 사람들 앞에서 고승은 금색 찬란한 가사를 훌쩍 벗어 내동댕이치며 외쳤다.

"너희들이 기다리고 있던 것이 이것뿐이란 말이나!"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재미난 이야기라고 할지 모른다. 그러나 이 집안을 비웃는 사람들도 이 같은 어리석음을 되풀이하고 있지 않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사람들은 어느 유명 작가의 작품을 접할 때, 대개의 경우 그 작품 자체에 갈채를 보내지 않고, 작품의 성공에 갈채를 보낸다. 이 작품은 명성과 다른 차원에 있는 것이다.

유명한 상표가 붙은 것이라면 품질의 좋고 나쁨을 떠나 그것 자체만으로도 상당한 평가를 받는다. 일류품, 명품이라면 보기 전부터 감탄을 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다. 명성이란 허명을 싸고 이렇듯 오해는 자꾸만 쌓여가는 것이다. 명성을 얻은 사람은 스스로의 명성을 처리할 수 없다. 처리하려고 할 때 그는 명성의 정체와 부딪친다. 그러면 ㉡ 알 수 없는 괴물이 자기 위에 덮여 있는 것을 깨닫고 저주를 느끼게 될 것이다. 그러나 소수의 예외를 빼놓고는 누구나가 허허한 명성에 급급하는 것 같다.

- 한무숙, 『명성(名聲)』 -

\* 상반(相伴): 서로 함께 함.

\*\* 사인교(四人轎): 앞뒤에 각각 두 사람씩 모두 네 사람이 메는 가마

(나) 唐鞋崇祿數介綿	당혜송말수개면
踏盡靑雲赴暮煙	답진청운부모연
淺綠周衣長曳地	천록주의장예지
眞紅唐扇半遮天	진홍당선반차천
識讀一卷能言律	침독일권능언률
財盡千金尙用錢	재진천금상용전
朱門盡日垂頭客	주문진일수두객
若到鄉人意氣全	약도향인의기전

당화 가족신에 버선을 두어 개씩 끼어 신고 아침에 [입신양명의 꿈]을 안고 집을 나서면 저녁 연기 날 때 집으로 돌아온다.

얇은 초록 두루마기 땅에 끌리도록 길게 입고  
진분홍 부채는 반쯤만 펴도 하늘을 가리겠구나.  
한두 권 책이나 겨우 읽은 끝에 간악하게 시니 올이니 떠들면서

재물을 천금을 탕진하고서도 오히려 돈을 더 쓰겠다는구나.  
권세 있는 집 문전에서 온종일 코를 박고 아침하면서  
시골 사람만 보면 제가 장안의 양반이라고 기세가 등등하구나.

- 김립(金笠), 『진일수두객(盡日垂頭客)』 -

56.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점]

- ① (가)는 예화를 일반화하여 교훈을 주고 있다.
- ② (가)에는 세태를 바라보는 화자의 목소리가 드러나 있다.
- ③ (나)는 외양 묘사를 통해 대상의 속성을 드러내고 있다.
- ④ (가)와 (나)에는 미래에 대한 긍정적 전망이 드러나 있다.
- ⑤ (나)는 (가)에 비해 풍자적 성격이 두드러진다.

57. (가)와 (나)의 화자가 모두 공감할 만한 노래로 적절한 것은? [1점]

- ① 뉘러서 가마귀를 검고 흥(凶)타 뉘던고./ 반포보은이 그 아니 아름다온가./ 이 저 새만 못 물 못내 슬허 노라.
- ② 냇가의 해오라비 무신 일 서 있느냐/ 무심한 저 고기를 여어 무엇하려느냐/ 두어라 한 물에 있거니 여어 무엇 하리오.
- ③ 산은 옛 산이로되 물은 옛물이 아니로다./ 주야에 흐르거든 옛물이 있을쏘냐/ 인걸(人傑)도 물과 같도다 가고 아니 오는 도다.
- ④ 내 조타 고 슬흔 일 지 말며/ 이 다 고 의(義) 아니면 좃지 말니./ 우리 천성(天性)을 직히여 삼긴 대로 리라.
- ⑤ 공명(功名)을 즐겨 마라 영욕(榮辱)이 반(半)이로다./ 부귀(富貴) 탐(貪)치 마라 위기(危機)를 니라./ 우리 일신이 한가(閑暇)커니 두려온 일 업세라.

58. (가)의 [A]의 기능을 설명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친숙한 사례를 통해 내용을 이끌어내고 있다.
- ② 구체적 사례를 제시하며 논지를 확장하고 있다.
- ③ 화제의 범위를 제한하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 ④ 글쓴이의 의도를 드러내며 화제를 제시하고 있다.
- ⑤ 보편적 진리를 제시하여 독자의 공감을 유도하고 있다.

59. (가)에 드러난 '명성'의 성격을 보여 주는 사례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전과자가 된 사람이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다.
- ② 아역 배우로 많은 인기를 누렸던 연기자가 성인이 되어서 가수로 데뷔하여 큰 성공을 거두었다.
- ③ 정치인의 아들이 아버지의 후광으로 정계에 입문하였으나, 정치 현실에 엄증을 느껴 물러났다.
- ④ 유명한 운동선수가 외국에 진출한 후 제 기량을 발휘하지 못하자 주위의 시선에 부담을 느껴 끝내 은퇴하였다.
- ⑤ ○○마을은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선정된 후 관광객수입은 늘었지만, 주민들의 생활 수준은 크게 향상되지 않았다.

60. ㉠ ~ ㉡ 중, (나)의 [입신양명의 꿈] 의미가 가장 이질적인 것은?

- ① ㉠      ② ㉡      ③ ㉢      ④ ㉣      ⑤ ㉤

※ 확인 사항

○ 문제지와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